
소방헬기는 생명을 구해야지 도지사의 일정을 의전하면 안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괴한의 흉기로 목에 치명적인 테러를 당하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서울로 후송 온 사실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비난 했는데, 정작 본인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 헬기를 공무라는 말로 포장하여 도지사의 행정 일정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사용한 횟수만 해도 162차례인데 심야에도 24시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근무하는 119 소방공무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업의 부회장 앞에서 도지사로서의 위신을 보이려고 관등성명을 요구한 소방갑질보다 더한 '공무'라는 단어로 포장된 안하무인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방헬기를 타고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와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다녀왔습니다. 긴급한 도정 업무가 맞습니까?

이뿐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소방헬기를 타고 요트대회 개막식, 외신기자 초청간담회, 세계유기농대회 영상미디어센터 개소식 등에 다녀왔습니다. 긴급한 도정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8년 6월, 김문수 후보의 일정에 헬기가 동원되면서 정작 인명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가평에서 열린 세계캠핑대회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 백운산에서 인명 구조 사건이 발생했지만, 소방헬기는 1시간가량 김 후보를 태웠던 탓에 뒤늦게 백운산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김 후보의 지사 시절 162회에 걸친 소방헬기 사랑으로 소방헬기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도지사의 일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본연의 임무에 투입되지 못한 셈입니다.

2009년 5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에도 소방헬기를 사용했습니다. 경기도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이미 산불 진화와 수색에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환자를 위해 대기하여야 할 헬기가 김 후보 의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소방헬기는 콜택시도 도지사의 관용차량도 아닙니다. 김 후보는 긴급한 도정 업무

무 지원을 위해 소방헬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나, 소방헬기 사용에는 엄연히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당시 운영규칙 상 인명구조는 1호, 긴급한 도정업무수행은 6호입니다. 인명구조와 캠핑대회장 준공식 중 무엇이 더 긴급한 상황입니까?

정말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도정일정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까

김문수 후보도 소방헬기 사용이 옳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초기 18개월 동안 소방헬기를 사용한 횟수는 총 97번에 달합니다. 과도한 헬기 사용 이력이 국회와 도의회에서 지적되자 2011년 이후 소방헬기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한 도정업무’ 라는 변명을 천보 양보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66회에 달하던 긴급한 도정업무가 갑자기 국회의 지적이후에는 사라졌습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하지 말장난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면 안 됩니다. 소방헬기 사용이 부끄러웠습니까? 그러면 사과하셔야지요. 궁색한 변명은 당신의 인격을 보여 줍니다

다른 후보의 1센티 잘못은 1미터, 1킬로미터로 과장하여 대국민 TV토론에서마저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는 사람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의식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당한 사탕발림으로서는 절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